주간말씀묵상

"은혜의 대리자"
(룻기 2:17-23)

2019. 3. 31 (주) NO.13

_____교구 _____구역 성 명【 】 점 수 점

들어가는 말
나누어 줌으로 함께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룻 2:17-23)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1. 룻이 어디서 이삭을 주워왔는지에 대해 나오미는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17,20절)
=>

2.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오미는 어떤 말을 합니까?(20절)
=>

3.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무를 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업 무를 자'란 어떤 뜻일까요?(20절)
=>

4.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

5.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를 위해 우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개인적/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본 후, 서로의 생각과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호의를 입어 살아온 지금,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